

# 만신창이 된 미륵산

미륵산 케이블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영시가 또 다시 고압선 송전철탄공사로 인해 효심사(주지 신학)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송방 마을. 마을 중심부에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 송전 철탄이 마을 주민들과 협의 없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마을 주민들은 당초 한전이 마을 주민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마을 중심에 112m 높이의 고압 송전탑이 세워져 생존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송전탑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불사를 진행 중인 효심사 주지 신학 스님은 "지장전과 송전탑과의 직선거리가 80m도 채 안되며 건립 예정인 대웅전과는 30~40m 인근이어서 수행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됐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마을 주민들도 "한전은 송전철탄이 마을에서 보면 꼭대기정도만 보이고, 장소도 다른 곳이라고 설명했었다"며 "공기질이 마을 주민들을 기만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교성-거제 송전철탄 공사현장은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이 고압 송전탑 건립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

## 케이블카 이어 고압 송전탑 효심사 인근 수행·환경 위협 신학 스님·주민 이전 요구

다. 특히 똑같은 송전철탄이 들어서는 인근 창포마을과 지도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주민 동의를 받아 행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철탄에정지가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고란초 서식지라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의견에 따라 철탄 설치 장소가 변경된 것과는 달리 현재 진행되는 공사는 마을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에 5월 11일, 신학 스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창원 전력관리센터를 향한 방문하고 송전탑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창원 전력관리센터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는 것은 실수지만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으므로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학 스님과 마을 주민들은 송전철탄 이전을 위해 인근 내포마을 주민들은 물론 시내에서 본격적인 서경운동에 돌입했다. 한전이 송전탑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부쟁은 물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이전을 위한 법적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500년전 藝魂 영원히 기억되리



500년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조선도공 천도추모다례'가 5월 19~20일 일본 사카에 이마리(伊万里)시에서 열렸다.(사진) 현봉 스님(송광사 전 주지)을 단장으로 한 조선도공추모제 불행위원회는 20일 이마리시에 자리한 조선도공 무연탑에서 천도재를 올리고 일본 도에발전에 공헌한 도공들의 뜻을 기렸다.

송광사 스님들과 국내 도예인, 일본 현지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천도재에서 현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무연탑은 임진

## 일본서 '조선도공 추모다례' 열려 지난해 8월 송광사 추모제 일환

정유재란 때 일본 가라츠, 이마리아가노, 사즈마, 하키 등지로 끌려간 880여명의 조선도공 영혼이 머무는 곳이다"며 "지난해 8월 송광사에서 불행한 '조선도공을 위한 천도추모제' 일환으로 이번에 일본 현지에서 조선도공을 위한 천도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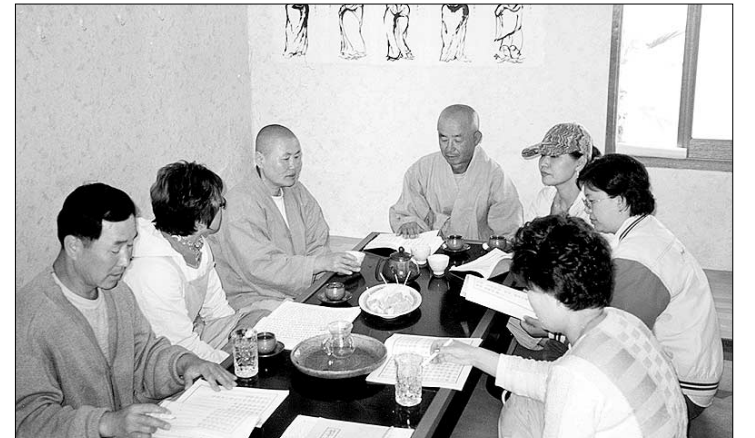
이원홍 한국차문화운동연합 고문은 추도사에서 "조선 도공들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창조적인 조선도공의 예술(藝魂)을 일본땅에 심었다"며 "현다례를 통해 양국의 우정이 깊어지고 조선도공들의 뜻이 영원히 기억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에 앞서 추모제 불행위원회는 19일 일본 아리따마지(유전촌) 도산사에서 이삼평 13대 손 감삼병위(84세)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도공 이삼평 추모다례'를 올렸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작업은...

## 남해 관음사

# 가난·소외 극복하는 따뜻한 도량



관음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사찰 복지 불사를 의논 중이다. 뒷줄 왼쪽이 덕화 스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해. 요즘 남해 구두산에는 땅을 파헤치고 바위를 깨부수는 공사 소리가 요란하다. 2001년 창건된 관음사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복지사찰'로 탈바꿈하는 소리다.

푸른 남해 바다가 내다보이는 구두산의 한 자락에 노숙자,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작은 복지관'이 들어서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법당, 요사채와 공양간. 이 전각들이 완성되면 관음사에는 6개의 건물을 보유했다고 되고, 이중 3개 전각은 노숙자 보호 쉼터, 장애인 요양소, 독거노인

무료 숙식 시설로 이용된다.

## 어머니 뜻 받아 17년 '복지 불사'

이를 위해 주지 덕화 스님, 경 스님 등 관음사 사중 스님들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관음사 신도들과 이웃들도 불사기금으로 6천만 원을 마련했다. 신도 대부분이 절 인근 농부와 어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6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복지 불사를 하겠다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뜻에 감복한 남해군청은 절과 읍내를 연결하는 폭 6m 길이 4.5km 포장도로를 만들어주었다.

새롭게 전각들이 완공되면 관음사는 복지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기금은 절 인근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어렵게 다니는 불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종자돈으로 쓸 계획이다. 여기에 장애인 생활을 보조하는 기금도 함께 마련한다.

주변에 농촌 마을이 많고 따라서 결

혼 못한 농촌 총각들이 혼하다는 것을 고려해 마련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캠페인, 무료 1천원 영가전도법회도 관음사의 복지 마스터플랜 중 하나다. 덕화 스님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 불사'를 서원한 데는 어머니의 유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 덕화 스님 나이 열일곱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부처님의 바다와 같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병든 사람을 보살펴달라'는 말씀을 남겼다. 총지종 신도로서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좇으며 살았던 자신의 뜻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길 원했기 때문이다.

덕화 스님은 어머니의 뜻을 잇기 위해 농사 짓기 위해 판

지 덕화 스님, 월영, 감조, 무경 스님 등 관음사 사중 스님들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관음사 신도들과 이웃들도 불사기금으로 6천만 원을 마련했다. 신도 대부분이 절 인근 농부와 어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6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덕화 스님의 간절한 뜻을 전해들은 그 지역의 해운 거사는 몇 년 동안 원앙이상을 타며 받은 월급 전부를 덕화 스님에게 보시했다. 덕화 스님의 발심에 감동한 월영 감조 무경 스님도 불사에 동참했다. 덕화 스님은 "보여주는 불사가 아니라 천혜의 자연과 아름다게 어울리는 불사를 하고 싶다"며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들이 마음 놓고 쉬어가고, 남자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여법한 도량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6월 10일 도롱뇽 승소기원 음악회

## 3종교 여성성직자 '사랑의 울림'

6월 14일 부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다시 열리는 도롱뇽 재판을 앞두고 지을 스님과 천성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원사, 천주교, 원불교 여성 성직자들이 주관하는 '도롱뇽 소송 승소를 위한 환경음악회'를 개최한다.

10일 오후 7시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수녀, 정녀, 스님들이 종교를 초월, 환경과 생명 사랑의 울림을 전하게 된다.

한편 공사 방해로 고소를 당한 지을 스님은 여러 차례의 소환에 불응, 강제 구인이 임



박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아직 천성산 터널 공사 현장을 지키고 있다. 5월 23일, 마산 YMCA 초등학교생들이 지을 스님을 방문(사진), 노래를 불러 주며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천미희 기자

## 보림사 만인만발 무자공양

### 주먹밥 1만5천개, 떡 8천개 준비

5월 23일 대구두류야구장에서 열린 연등 축제에서 육포 보림사주지 선주신도 100여 명이 주먹밥 15,000개를 준비하고, 관오사(주지 지도)신도와 불교사회복지회 햇빛촌떡방 사업단이 떡 8000개를 준비해 공양을 더 화제가 되고 있다.

육포 보림사 주지 선주 스님과 신도들은 단인만발 무자 공양을 위해 3일부터 준비를 했으며, 주먹밥은 23일 당일 새벽 4시부터 직접 만들었다. 또 불교사회복지회 대구남구 노인인력기관에서 운영하는 햇빛촌 떡방 사업단 남이주 할머니(62세)를 비롯한 4명의 할머니들이 손편 사업단 11명 할머니들과 관오사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꼬박 24시간의 공을 들여며 8000개를 만들어 보시했다.

쌀 107가마, 재료준비에만 3일이 걸렸다는

떡방 사업단 최지영 사회복지사는 "할머니들이 힘을 제시간에 다 만들 수 있기를 우려했는데 노레도 부러며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 뜻깊게 회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 삼광사, 효행상 시상 및 경로잔치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5월 24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삼광효행상 시상 및 제 14회 삼광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삼광사 주지 도원, 한나라당 김병오 국회의원, 김명태 삼광사 신도회장을 비롯 부산시 전역의 어르신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지영, 손옥임, 서석락, 김옥이, 홍춘자 씨 등이 효행상을 수상했다.

효행상 시상식에 이어 열린 경로잔치에서는 삼광사 바라무회의 천수바라무, 초대가수 박수정, 최진경 씨의 노래, 각설이타령, 오병수 무용문화재의 판소리 공연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 대구 읍내정보통신 중·고 수계식

"저희들은 진목 울사를 통해 새로운 몸 받았으니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이보다 친구의 어려움을 쓰드름을 삶을 살겠습니다"

대구 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교 대구소년원)는 5월 22일 동화사 포교국장 혜경 스님, 승가대학 학감 법천 스님, 파계사 영산출원 출가 진목 스님, 대구·경북 포교사단 권대자 교문 의 포교사와 8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관 2층 법당에서 진목 스님을 계사로 청소년 17명에게 수계식을 거행했다.

수계식을 마친 진목 스님은 "세상을 살아 감에 유감스러운 것은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보다 포기하기 쉽다는 것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학생들에게 "화초를 키워가듯 좋은 습관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읍내 정보통신중고등학교는 대구

경북 포교사단 소년원팀(1팀장 박정희, 2팀장 김남순)에서 매주 1회 법회를 진행해 왔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무일불교문학상에 박수영 씨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제정한 '제1회 무일 불교문학상'에서 일반부 박수영씨의 시 '면벽'과, 학생부에 이화영교 3년 전이러양의 소설 '길'이 각각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국민의 정서함양과 불교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불교문학상을 제정했으며, 6백여 편의 응모작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두 11편의 우수작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일반부 대상수상작 '면벽'은 수행 중에 일어나는 심리과정이 시적으로 잘 형상화 돼있으며, 학생부 대상작 '길'은 문장이 깔끔하며 구성이 잘 정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 한국불교 해동종

宗 正 海 運 經 王

|                 |                 |                 |
|-----------------|-----------------|-----------------|
| 원로위원장 <b>도운</b> | 총무위원장 <b>혜우</b> | 총회회장 <b>대법</b>  |
| 사서실장 <b>보각</b>  | 포교위원장 <b>성재</b> | 총회부회장 <b>정관</b> |
| 사정부장 <b>천강</b>  | 교육부장 <b>법현</b>  | 총회부회장 <b>도일</b> |
| 총무부장 <b>정일</b>  | 사회부장 <b>지원</b>  | 총무국장 <b>자은</b>  |
| 재무부장 <b>도봉</b>  | 포교부장 <b>도월</b>  | 교육국장 <b>도승</b>  |
|                 |                 | 사정국장 <b>해월</b>  |
|                 |                 | 총무부원장 <b>화도</b> |

## 한국불교 해동종 종도일동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34-1 전화 043)853-2855 팩스 043)853-2855

###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독학방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무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헷갈리지 않는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삼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까지 나온다.

독학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48페이지 / 정가 20,000원

### 풍수학논법

본서는 불필요한 논리전개과정을 과감히 축소하고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지름길 안내를 시도했다. 내용과 표현방법을 단순화 해 흔한 스타일의 표현은 탈피했다.

부록 / 나만의 모순일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성재권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페이지 / 정가 25,000원

###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면벽이치는 지식, 만물을 꿰뚫는 통시력, 특히 공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해설이 있다.

관음역서 시리즈

- 1 해서 명리진경 신국판/책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0원
- 2 21c 최산만 우리말 대운 관세력 신국판/책서 조영수 편저/정가 16,000원(책)
-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
- 4 최산만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30,000원
-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 6 그림 당시사 대전 4x6배판/이성일 지음/정가 25,000원
-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정민/송원스님 지음/정가 25,000원
- 8 고전 풍수학 핵심서 신국판/양정민/서부 韓正源編/정가 25,000원
- 9 사주학 강의 신국판/양정민 韓正源 編/정가 12,000원
-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양정민 韓正源 編/정가 15,000원
- 11 신도정비결 신국판/배관 지음/정가 8,000원
-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정민/이상욱 지음/정가 25,000원
-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정민/조성백 지음/정가 190,000원
-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송원스님 지음/정가 15,000원
-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정민/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 16 꿈풀이 실용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 17 평가총기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정수 지음/정가 15,000원
- 19 구상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정민/문경애 지음/정가 25,000원
-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정민/송원스님지음/정가 30,000원
-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정민/서부동 지음/정가 25,000원
- 22 직전수 형의(하) 신국판/양정민/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유영재 지음/정가 18,000원
- 24 21C 천문만년력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35,000원
-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5,000원
- 26 직전수 형의(하) 신국판/양정민/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정민/김유성 지음/정가 20,000원
- 28 新 道장비결 신국판/백경 지음/정가 9,000원
-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정민/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